

한-일 세정 셔틀외교 35년째, 과세정보 교환 및 체납세금 징수공조 성과 빛났다

- 임광현 국세청장, 6.24(수) 서울에서 제30차 한·일 국세청장회의 개최
- 정보교환, 징수공조, 세정지원, 조세범죄 대응 등 협력방안 폭넓게 논의

-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4일(수)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제30차 한·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.
 - 양국 국세청은 '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, 올해 뜻깊은 30번째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다.
 -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▲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▲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▲조세범죄 대응과 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- 일본은 경제·문화·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
 -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은 96만 명^①, 현지법인은 325개^②, 우리나라 주재 일본 교민은 7만 명^③, 일본계 기업은 2,119개^④에 달할 정도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다.
 - * [출처] ① '25.12월 재외동포청 ② '24.9월 코트라 ③ '25.12월 법무부 ④ '24.12월 국세통계포털
 - ※ 일본과의 교역 규모는 '25.12월 기준 772억불로, 전체 교역 국가 중 5위(한국무역협회)
- 임 청장은 환영사에서 “그간 양국이 정보교환, 징수공조*, 상호합의**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”고 평가하면서 “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”고 제안하였다.

* [징수공조] 한 국가가 자국 세법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권을 상대국에 요청, 상대국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국가 간 협력행위.절차

** [상호합의] 조세조약의 적용·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·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과 체약 상대국 과세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

- 에지마 청장 또한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,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한층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하였다.

①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 강화

- 임광현 국세청장과 에지마 청장은 먼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.
- 우선 정보교환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이 상호 주요 교환상대국인 만큼, 정보교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.
 - 한편, 양국은 매년 정보교환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서 거둔 성과를 기리기 위해 정보교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상대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해오고 있는데,
 - 이번 회의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양국 국세청 직원 각 1명에게 각각 상대국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하였다.
- 징수공조 분야에 있어서 양 과세당국은 체납관리와 징수공조 협력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OECD 「체납세금 관리 협의체」(Tax Debt Management Network, TDMN)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.
 - 동 협의체는 OECD 조세행정포럼(FTA) 산하에 설치되어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·행정 경험을 공유하며,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었다.

② 진출기업과 교민 세정지원 당부

- 양 국세청장은 한국과 일본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회의가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였으며
 - 임 청장은 특히 일본과의 상호합의 회의가 가장 내실있고 활발하게 진행*되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에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하였다.

* '25년까지 처리된 쌍방APA 총 665건 중 일본이 182건(27.4%)으로 1위

- 임 청장은 이어 올해 5월에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세금수호천사팀*의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 대상 현지 세무설명회**에 대하여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.

* [세금수호천사팀(K-Tax Angel)] 재산제세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세청 전문가 그룹('26.1월 발족)으로 교민 대상 해외 세무설명회 강의 등 담당

** [일본 세무설명회] '26.5.26일(요코하마) ~ 27일(오사카) 개최, 교민과 기업 58명이 참석

③ 조세범죄 대응방안 및 AI·빅데이터 활용 논의

- 양국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,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호 공유하는 등 양국의 조세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가졌다.
- 특히, 인적·물적 교류가 활발한 한·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, 역외 탈세 등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- 우리 국세청은 또한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고,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'AI 대전환'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였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,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상훈 (044-204-2861)
		담당자	사무관 김미애 (044-204-2877)
<협조>	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	책임자	과 장 송윤정 (044-204-2901)
		담당자	사무관 박옥련 (044-204-2942)
<협조>	정보화관리담당관 빅데이터센터	책임자	과 장 우연희 (044-204-4501)
		담당자	사무관 조성희 (044-204-4502)

참고

한-일본 국세청장회의 사진자료



임광현 국세청장과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이 접견하는 사진



임광현 국세청장과 접견 대표단 단체사진



임광현 국세청장이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에게 유용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하며 정보교환 감사장을 전달하는 사진



임광현 국세청장과 양국 대표단 단체사진